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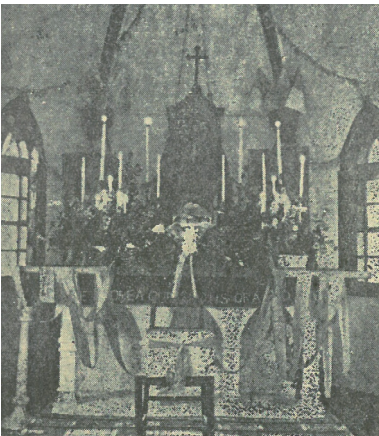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⑦

전번 호에 이어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대조역주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10월호를 마지막으로 김 신부의 생애와 활동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시신 수습과 안장, 미리내로 이장 (1846년 가을)

김대건 신부가 1846년 9월 16일 새남터 형장에서 치명한 이후 그 시신은 새남터 모래밭에 묻혔습니다. 얼마 후 감시가 느슨해지자 신자들은 몰래 새남터로 가서 시신을 수습했고, 미리내[현재 경기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유해를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기념성당 내부
[『경향잡지』 1960년 11월호]



[사진] 김대건 신부 시복기념성당
(2021년 현재)

이에 대한 내용도 시복재판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증언 중에는 김 신부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직접 참여한 신자도 있었고 참여한 사람의 가족과 지인도 있었습니다.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김 신부의 시신은 새남터 모래밭에서 바로 미리내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두 차례 가매장을 거친 다음에 장례 의식을 치르고 현재의 묘소에 안장되었습니다. 1901년 시복 절차를 위해 김 신부의 유해는 발굴되었지만 묘 자리는 계속 남았고, 현재 ‘김대건 신부 시복기념성당’

(1928년 건립)과 새로 단장된 묘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 야고보[95회차 증언]는 1846년 가을에 그 자신이 신자들과 함께 새남터 모래밭에 가서 김 신부 시신을 찾아 흠이불에 담아 3마장[약 1.2km] 떨어진 왜서[와서(瓦署).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건너편에 묻었는데,

다음 날 다른 신자들이 다시 시신을 왜고개[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동 일대로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마리아의 증언에 의하면, 박순집 베드로의 부친(박 바오로)과 다른 신자들이 새남터 모래밭에서 김 신부의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의 손에 강아지에게 물린 흉터를 보고 김 신부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박순집[86회차]은 그의 부친이 시신 수습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신자들이 시신을 찾아 문배부리[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1동에 속한 문배동 일대]에 가매장했고 박해가 찾아진 후 미리내로 발인해서 장사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가아아나[91회차]는 한경선과 나창문이 자신의 집에 와 있다가 10월 어느 밤에 나가 김 신부의 시신을 찾아 장사지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새남터 모래밭에서 김 신부의 시신을 수습한 신자들은 박순집의 부친 박 바오로, 한경선, 나창문, 서 야고보 등이며 이들은 모두 서울에 사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박순집의 증언대로 1846년 천주교 박해가 잦아들자 신자들은 다시 김 신부의 시신을 발굴하여 미리내로 안장했습니다. 김성서 요아킴[72회차]은 서울 신자들이 김 신부의 시신을 찾아 미리내에 장사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바르바라[54회차]는 자신의 남편 이 요한과 다른 신자들이 미리내 안장에 참여했으며 남편에게 그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바실리오[70회차]는 신치관과 다른 신자들이 미리내 안장에 참여했으며 직접 신치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루치아[68회차]는 그해 가을에 신자들이 시신을 찾아 염하여 곁관[외관과 내관으로 관을 두 개를 씌]에 넣고 미리내 최 회장 공소에 관을 모셨다가 그 근처에 장사지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프란치스코[81회차]도 신자들이 시신을 찾아 행상(行喪, 상여를 모지에 나름)하여 미리내에 묘소를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로 볼 때 서울 신자들이 적절한 때를 골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김 신부의 시신을 미리내에 안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김대건 신부 묘소 순례 (순교자 현양운동의 시작)

천주교가 금지되고 탄압받던 시기에 치명적인 사제나 신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신자들은 서로 돈을 모으고 힘을 합쳐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수습하고 안전한 곳인 미리내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스스로 김 신부의 묘소를 찾아가 그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면서 그의 뒤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 막달레나[29회차]는 미리내에 있는 김 신부의 묘소에 가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신치관에게 미리내 안장 소식을 들은 오 바실리오[70회차]는 여러 번 미리내를 찾아가 김 신부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순교자 현양운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 나오는 신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료 선교사제의 서한이나 관찬 자료와 함께 신자들의 증언은 김대건 신부의 시복시성 추진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김대건 신부를 비롯하여 기해·병오 순교자들과 그 시대의 교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복재판록’의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교회사의 저변 확대와 연구 심화를 위해 ‘시복재판록’을 비롯한 교회사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방 신부가 조선 국경에서 쓴 서한 2통

교우분들께서는 올해 순교자 성일을 어떻게 묵상하며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더불어 김대건 신부님을 선발하고 가르치신 스승 성 모방(베드로) 신부님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연구소에서는 열심히 모방 신부 서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모방 신부가 조선과 중국의 국경인 변문(邊門, '책문')에서 쓴 서한 2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한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방 신부와 조선 교우들이 만나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서양인 선교사제의 입국을 성공시킬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서한의 간략한 내용과 기존에 이 서한들이 어떻게 소개되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한 :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혹한의 추위를 뚫고 변문에 도착한 모방 신부가 1836년 1월 12일 변문에서 쓴 첫 번째 서한은 파리 외방전교회 마카오 대표부의 대표였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모방 신부 문서'인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번 문서의 31~34쪽이며 프랑스어로 쓰여있습니다. 서한에서 모방 신부는 이틀 전인 1월 10일 조선에서 온 교우 2명을 만나서 조선 입국 방법을 논의한 끝에 모방 신부가 말 못하는 병자 행세를 하고 압록강을 건너기로 합의하고 12일에 함께 출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작성되고 꼭 100년 후인 1936년에 역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제였던 피송 신부(1893~1945)가 당시 교회잡지 『가톨릭청년』에 번역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32호(1936년 1월), 20~23쪽). '레그레좌 신부 전, 나의 지극히 사랑하온 제형 신부님'으로 시작하는 이 번역문은 우리말로 무척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있어서 8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조선으로 인도할 방책을 발견할 때까지 1년이나 혹은 2년 동안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내게 하려는 눈치이더이다.” “그들의 말인즉 신부의 의향을 알아보아 비록 어떠한 장애가 있던지 그리고 혹형 중에 죽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오즉 신부께 순종하리라고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천주의 성총으로 성공할 희망이 있다 하며 이튿날 저녁에는 내가 조선을 향하여 길을 떠나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또한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신앙선조들의 향취가 있는 옛 용어들, 예를 들면 ‘기구’, ‘신덕’, ‘신공’, ‘성총’과 같은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과 일부 오역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한의 말미에 덧붙인 추신에 “주교 한 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청하오니 비록 범 신부 같은 이라도 나는 그를 많이 사랑하겠나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방 신부가 의미한 바는 “부탁이오니 주교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앵베르 신부님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손에 묵주를 항상 들고 잘 때나 깎 때나”

병인박해 때 문경 한실에서 살다가 상주에서 순교한 김 요셉은 농사짓고 짚신 삼고 ‘묵주 걸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병인치명사적』 3권 53쪽). ‘묵주 걸기’는 묵주 만드는 작업을 이르며, 이 일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쓰신 1857년 9월 15일 자 리부아 신부님께 보낸 편지 마무리에는 ‘묵주를 견고하게 잘 만드는 도구’인 집계와 ‘묵주 만드는 금빛 나는 구리 철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묵주를 만드는 도구와 재료를 조선으로 보내주는 것이 묵주를 조선 교우들에게 최대한 많이 선물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최양업 신부의 1857년 9월 15일 서한』, 정신석 옮김,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바오로딸, 144쪽). 이처럼 묵주는 신앙 선조의 아주 기본 필수품이었습니다.

병인박해 때 홍주에서 순교하신 김자선의 모친은 온갖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아무쪼록 위주치명(爲主致命)하여 오주(吾主)(와) 성모(聖母)의 슬하에 가(서) 살아 보자”는 신앙 고백과 함께 손에 묵주를 항상 들고 잘 때나 깎 때나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병인치명사적』 11권 16~18쪽).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바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중 하나는 묵주기도일 것입니다. 구교우 분들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촛불 켜진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묵주 알을 굴리며 기도 올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인상 깊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순교자증언록시리즈(『기해병오순교자시복재판록』, 『병인치명사적』)와 선교 사제 서한(『앵베르 주교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성 베르뇌 주교 전기』와 같은 책 속에서 묵주기도를 중요시하는 선교사제와 신앙선조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신앙 선조와 우리 부모님의 묵주기도의 전통을 이어받고 물려주도록 노력하게끔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옥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하고 전문연구자의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9호 간행

- 학술논문과 보고서, 연구소 휘보 등을 실은 『교회사학』19호를 2021년 9월 30일에 간행했습니다.